

그리스도인 16.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Christian 16. A Christian is someone who has been forgiven of all their sins.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다. 그 죄로 인해 빚어진 도덕적인 잘못들, 예컨대 살인, 폭력, 거짓, 탐욕, 간음, 우상숭배들이 **죄들**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으로 더러운 행동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던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나이다.'(시 51:4a) 또 예언자 나단이 그의 죄에 대해 지적했을 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삼하 12:13)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주님을 대적한 것이며, 주님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이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요일 3:4)

율법(the law)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을 범하는 것이 죄가 된다.

이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유죄가 되기 때문이라.**(약 2:10)

특히 율법은 아무리 조심해도 그것의 하나만 어기면 그것 전체에 대해서 **유죄(guilty)**가 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가 된다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눅 5:21)라고 말한 적이 있다.

죄는 심판을 불러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범한 어떤 죄들에 대해 형벌을 치렀다 해도, 또 감옥에서 수감되어 살았거나 벌금을 납부했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면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히 9:27). 사람들은 죄에 대해 오해를 하는데, 나쁜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사회적인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또 굳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죄가 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용서해주시는가?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런 식으로 용서가 이뤄진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실종된 것이 되어 하나님의 용서는 늘 비난받게 될 것이다. 성경기록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는지 말해주고 있다.

또 율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히 9:22)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다. **피는 생명이고 피를 흘려 속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랴.(레 17:11)

여기서 **속죄(atonement)**는 **죄를 덮고 가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의 피를 보고 그 희생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더는 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보면 **죄 값은 피 흘림으로 지불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이 피를 흘릴 형편이 못 된다. 우리의 피는 더러운 피라 속죄를 위한 효력도 없다. 우리의 피를 흘리면 우리는 그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멸망한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되실 수 있는 희생양, 곧 하나님의 어린양을 준비하셨다.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the Lamb of God, 요 1:29)**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벧전 1:19)**를 흘려주셨다. 그 피로 우리를 건지셨다. 그 피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만족하시고 그분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죄들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주시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썼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엡 1:7)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

초기 교회 시절,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사도들을 위협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도록 했다. 그러나 그때 사도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5:31)

사도들의 말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이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요일 1:7b)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모든 죄(all sin)라는 말이다. 모든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말한다.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를 다 말한다.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그 어떤 죄로도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모두 용서받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셨어도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므로 그분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흘리신 피가 죄인들을 위해 충분한 효력이 있음을 입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된다.

요한일서를 보자.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요일 2:12)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흘리신 자기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